

종합·해설

문-안, 단일화 지지층 결집·TV토론 총력

문, 연락처 DB화... SNS공간 친구 맺어주기 안, 18일 조선대 팬클럽 모임 호남민심 공략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우위 선점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 정성을 쏟고 있다.

특히 양 후보 측은 다음주 초 예상되는 TV토론 대결을 앞두고 전략가 다듬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문 후보 선대위는 보좌진들이 문 후보의 트위터 글을 정기적으로 '리트윗' 하도록 하는 한편, 지인들의 연락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SNS 공간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문 후보와 친구를 맺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텃밭인 호남의 선택을 받기 위해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국민통합위원장이 광주와 전남에서 밀바다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선대회 차원에서 다각적 물량공세를 펴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안 후보 측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후보론'에 대한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는 양상이다.

문 후보 측에 비해 열세인 조직력을 만회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최대한 보완해 상대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안 후보 측은 단일화의 승부처가 될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해 오는 18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팬안 후보의 팬클럽인 '안철수와 해피스(이하 해피스·happys)'가 팬클럽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에는 단일화를 앞두고 호남에서 세 과시를 통해 단일화 승기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측 실무단은 또 두 후보 간 TV토론 실시에 합의하면서 TV토론 대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TV토론은 정해진 시간에 두 후보가 나란히 능력을 검증받는 '상대 평가'의 시험대로, 단일화 표심을 가르는 중대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 10차례 이상의 TV토론 경험이 있는 만큼 안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정경험 등을 내세워 정책 능력과 안정감을 강조하면서 말형 이미지로 톤 큰 모습을 부각시키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치를 내세워 온 안 후보는 참신함과 변화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안정감과 정책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는데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역 트러유세 박근혜에 선관위, 공명선거 협조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 박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하지만 박 후보에 앞서 연설을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와 한광옥 수석 부위원장은 각각 검찰 고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에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투표시간 연장 공동캠페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김영경 선대위원장(왼쪽)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송호찬 선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투표시간 연장 공동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여성정책 6대 약속' 공약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4일 "2014년부터 셋째 아이에 대해선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 6대 약속'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차원에서 셋째 아이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특별전형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

다.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장관직·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여성관리자 확대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당 공천심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의무화 ▲여성 교수·교장 채용쿼터제 등을 약속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황우여 "박, 호남에 '올인'해야"

지역언론 간담회 밝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호남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지역언론 간담회에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부동층이) 2~3%에 불과할 정도로 판이 정해졌지만, 호남은 아직까지 슬렁이는 분위기"라며 "박 후보는 호남에서 화통점정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하고 동서화합과 과거사를 정리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호남인들도 역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도 호남 출신 당 대표, 나아가 호남 출신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호남이 진정성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인재 등용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태어난 곳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동구청장 보선 후보 최종 선출안 권리당원 전수조사 30%·여론조사 70%

민주당은 광주 동구지역 권리당원에 대한 전수조사(30%)와 동구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70%) 결과를 합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14일 민주당 선관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2차 컷-오프를 통과한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동구지역 권리당원 전수조사와 동구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차례의 전수조사를 통해, 권리당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동구 지역 인심을 정확하게 수렴, 최종 후보를 공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차 컷-오프의 경

우, 3~4위 예비 후보간의 차이가 박일 경우, 4명으로 압축하고 3~4위 간의 차이가 일정 정도 있을 경우, 3명과 합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리당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가 결과적으로 동구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권 인사의 입김이 작용, 공천 결과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동구 지역 권리당원은 모두 203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부분 동구 정치권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1차 컷-오프

를 통과한 6명의 예비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공식위는 이르면 15일 여론조사 결과와 그동안 수집했던 예비 후보들의 심사 자료 등을 토대로 2차 컷-오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민주당의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만으로 2차 컷-오프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등을 병합해 2차 컷-오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온지

추미애 "광주·전남서 힘 얻고 싶다"

지난주 2박3일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던 추미애 민주당 당국 민통합위원장 14일 전남도를 찾아 정권교체와 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통합의 소중함을 알고 계신 광주·전남에서 힘을 얻고 싶다. 개혁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개혁과 통합의 두 수레바퀴를 건강하게 끌고 나가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호남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이날 김재우 전남도의회 의장과 정책 및 정당운영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뒤 박준영 전남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구축비 50억원 ▲광주교대 다문화교육체험관 설치 15억원 ▲순천대 에코그린캠퍼스 조성 20억원 ▲한국학 중앙연구원 호남분원 건립 10억2900만원 ▲한국학의학연구원 전남센터 설립 20억원 ▲국립 광주과학관 운영비 11억5000만원이 상임위에서 각각 증액됐다.

광주·전남 소상공인 500명 지지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관련 종사자 500명은 1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문 후보가 제시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이 건강한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담고 있어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양혜령, 동구청장 보선 무소속 출마

민주당 광동구정장 보궐선거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컷오프에서 탈락한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양 전 의원 측은 14일 "2011년 창당된 민주당이 경선 불복자를 5년 동안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적용해 1차 컷오프에서 탈락시킨 것은 헌법의 불소급 원칙에도 반한다"며 "동구민의 지지를 받는 양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15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혜자, 지역현안 사업비 205억 증액

민주당 광동구정장 보궐선거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컷오프에서 탈락한 박혜자 전 광주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도 호남 출신 당 대표, 나아가 호남 출신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호남이 진정성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인재 등용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태어난 곳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과기원 UN대학 부설연구소 운영비 30억원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실험실습장비

철·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광주석산고등학교

2012학년도 전국일반고 학력·교유연·선용도평가
광주광역시 남고1위 전체 2위 (동양일보)

201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교과부선정 학업 향상도 광주광역시 **1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평 자료 조사대상
교과부 선용도평가 (선용도평가) (전국 1위) (전국 2위)

교육·학력·평가 우수 학교 (2011) (2012)

수시합격률 최우수 학교 (2011) (2012)

봉사활동 최우수 학교 (2011)

교내·외 장학금 최우수 학교 (2011) (2012)

교내·외 장학금 최우수 학교 (2011) (2012)

2012학년도 신학기 학생 만족도 조사 최우수 학교

2012학년도 신학기 학생 만족도 조사 최우수 학교

2012학년도 신학기 학생 만족도 조사 최우수 학교

광주석산고등학교

사정상·금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사무실전용)

- 14층 건물 중 2층 코너 50평
- 주차 3대 무료, 대형 주차장
- 실내인테리어 2000만원 소요
- 용자 5천만원 정도 가능
- 현, 보 1천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 금매가 8500만원(시세 1억1천만원)
-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능

문의 : 010-3605-5000
010-4667-93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